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김 정 희 교수지도
석사학위 청구 작품연구논문

자연을 통한 은유적 표현 연구

- 본인의 작품을 중심으로 -

2009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조 소 과
곽 정 호

자연을 통한 은유적 표현 연구

- 본인의 작품을 중심으로 -

김 정 희 교수지도

이 논문을 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08년 11월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조 소 과

곽 정 호

인 준 서

곽정호의 석사학위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_____인

심사위원_____인

심사위원_____인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논문개요

지구상에 존재하는 수많은 생명체는 인간에게 물질적으로 정신적으로 많은 것을 제공해왔다. 아리스토텔레스에 의하면 “예술은 자연을 모방한다.”라고 <자연학>에서 말했다. 자연에서의 모방을 통해 문명과 문화의 발달로 인간의 생활은 발전해 왔다. 그러나 자연의 본래의 성질은 변하지 않으며 지속적이라 할 수 있다. 인간은 역사적으로 순환과정에 적응하며 살아왔다. 자연은 인간에게 정신적으로 물질적으로 많은 것을 제공해왔다. 자연이 인간에게 주는 참된 의미는 나타나는 현상에서보다 그 안에 내재되어있는 정신에 있다. 그것은 본인 작품에서 추구하는 예술정신이기도 하다.

자연을 이해하는 시각의 차이는 관점의 차이로 확대 해석 되어진다. 관점의 차이는 주관적이며 개인적이다. 대상에 대한 관점의 시각을 어디에 두는가에 따라 해석이 달라지게 되며 의미 또한 바뀐다. 본인 작품에 있어 자연 안에 존재하는 다양한 생물, 무생물에 대한 내적 관찰은 작품의 의미와 사고의 이해를 확장시켜 나감으로써 연구의 의미를 두었다.

제1장 서론에서는 본인 작품에서 자연을 통해 표현하고자 했던 작품의 제작 동기와 연구 목적을 기술하였다.

제2장 본론에서는 본인 작품에서 표현하고자 한 자연을 통한 인간에 대한 관점과 생태계 선상에서 본 인간이 자연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자연이 인간에게 주는 미에 대한 감성적 혜택에 대해 설명하였다. 또한, 자연을 통해 바라본 대상에 대한 인간 존재를 의인화하여 상징적으로 표현했다. 그리고 재료 선택의 동기와 작품 제작과정, 재료적 특성과 기법에 대해서도 설명하였다.

제3장 결론에서는 본 논문의 내용을 집약 정리하여 서술하였으며 본인

작품세계에 대해 한층 폭넓은 시야로 다양한 각도에서 생각하고 자연을 통한 존재의 모습을 여러 방향으로 작품을 통해 실현 제시 해보고자했다

목 차

논문개요

I. 서 론	1
II. 본 론	3
1. 작품의 이론적 배경	3
1) 자연과 인간의 관계	3
2) 문명의 발달이 자연에 미치는 영향	5
3) 자연을 통한 미에 대한 관점	7
2. 작품의 형태적 근거	10
1) 자연에 대한 심상	10
2) 존재의 은유적 표현	11
3) 표현방법	13
3. 개별 작품 분석	16
III. 결 론	39

참 고 문 헌

ABSTRACT

작 품 목 차

- [작품 1] 이상1, 15×15×40cm, 나뭇가지, 폴리코트, 철사, 안료, 2008 16
- [작품 2] 도시, 28×28×29cm, 폴리코트, 안료, 아크릴 칼라, 2008 18
- [작품 3] 숲1, 23×23×24cm, 나뭇가지, 폴리코트, 안료, 2008 20
- [작품 4] 숲2, 23×23×24cm, 나뭇가지, 폴리코트, 안료, 2008 22
- [작품 5] 동행1,2, 동행1, 17×23×44cm, 동행2, 28×32×44cm, 폴리코트,
안료, 2008 24
- [작품 6] 정지된 시간 1, 2, 3, 32×32×30cm, 나뭇잎, 소라껍데기, 폴리코트,
안료, 2006~2008 27
- [작품 7] 잃어버린 시간, 25×25×25cm, 폴리코트, 철사, 안료, 2008 29
- [작품 8] 길, 24×24×16cm, 폴리코트, 안료, 아크릴 칼라, 2008 31
- [작품 9] 표출, 7×12×46cm, 폴리코트, 안료, 아크릴 칼라, 2008 34
- [작 품 10] 봄 1.2.3, 15×40×16cm, 폴리코트, 철사, 안료, 2008 36

I. 서 론

지구상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은 각 나라에 있어 환경과 문화적인 차이에 의해서 다소 다를 수는 있으나 사람 사는 모습의 형태는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본다. 생태계적으로 해석해 볼 때 자연과 인간은 생태계의 같은 선상에 놓여 있다고 봐야한다. 인간은 계절의 변화, 자연의 동식물과 유기적으로 연결된 생태적 존재이다. 식물과 동물은 그들의 방식에 따라 성장한다.

자연의 경이로움은 인간에게 예술적인 다양한 영감을 주는 동시에 인간 삶의 의미와 존재의 의미를 일깨운다. 자연에 대한 경외감은 정서적으로 고양됨을 느끼게 하며 자연으로부터 지혜를 얻는다. 자연이 인간에게 주는 무한한 혜택 중에 자연은 정서적으로, 심리적으로 많은 위안을 준다.

인간은 자연에 참여하는 것을 통해, 주체와 객체간의 벽을 허물고 우리가 알고자 하는 것과 하나가 된다면, 다른 존재들이 말하는 언어를 들을 수 있는 능력 또한 배양 될 것이다.¹⁾ 예술가는 초시간적이고 보편적인 진리, 곧 철학적인 진리를 추구하므로 자료를 다루는데 모종의 자유를 얻는다. 또한 예술은 인간의 의지를 초월하여 신의 섭리 속에서 존재의 비밀을 찾고 형상의 원형과 비밀을 찾는다. 예술이 다루는 인간의 문제는 결국은 자연의문제로 포괄되어 예술은 “또 다른 자연”의 형태로 또는 “인간을 덧붙인 자연”의 형태로 존속되어왔다.

그러나 지구 문명과 과학의 발달로 인한 산업화와 정보화시대를 살면서 생태계의 위협에 따른 자연파괴 등 문화의 발달로 인한 인간 삶의 병리적 현상 등 물질문명의 편익에 현대인의 메마른 기계적 감성 속에서 예술은 그 본래의

1) 제임스 손튼, 정영문역, 「자연은 나의 영혼입니다」, 모색, 2004, pp.209~217.

모습과 존재의 가치를 상실하고 있으며, 예술의 상실은 인간의 상실로 문제 상황에 비추어 , 우리는 예술의 원형으로 또한 존재적 가치의 근거로서의 자연의 관계를 다시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²⁾

본인 작품에 있어서 자연에 존재하는 생물, 무생물들에 대한 시각의 다양화를 통해 우리 인간의 삶을 다시 조명해보고 자연을 통해 교훈을 얻고자 희망하는 본인의 노력과 작품을 통해 조형화함으로써 사람들에게 자연을 이해하는 시각의 확장과 관점의 폭을 넓히는데 본인의 연구 의미가 있다.

2) 한국미학예술학회 편, 「 예술과 자연, 미술문화 」, 1997, pp.5~6.

II. 본 론

1. 작품의 이론적 배경

1) 자연과 인간의 관계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를 정의하려면 무엇보다도 먼저 자연을 모태로 하여 탄생한 자연적 인간으로부터 출발해야 할 것이다. 인간과 자연은 떨어뜨려서 생각 할 수 없는 관계로서 모든 근원적인 것은 자연으로부터 시작된다고 할 수 있다.

고대에는 자연 즉 인간이나, 동, 식물은 물론 하천이나 암석 혹은 원자로 부터 천체에 이르기까지 일체의 것은 생명 있는 존재로써 다루어졌다. 아리스토텔레스(기원전. 384~322)가 그의 <자연학>에서 논의하는 자연도 주로 생물학적인 자연이었다. 자연을 유기적인 생명체와 같은 것으로 보았다.³⁾

루소는 인간본성을 형이상학적으로 고안된 자연 상태에서 찾으려고 하며 자연적 인간에서 시작한다.⁴⁾

인간은 감성적 존재인 동시에 이성적 존재로서 인간은 자연적 본능을 가진 자연적 존재이다. 우리가 자연적 인간을 정의 할 때에는 흔히 본래적인 자연 상태에 있는 인간을 대상으로 하며 또한 자연적 본능과 자연적 성벽을 가진 인간을 고찰의 대상으로 삼는다.

칸트는 루소의 자연 상태의 찬미에 호응하여 루소가“자연으로 돌아가라”

3) 김용정, 「칸트 철학 자연과 자유의 통일」, 서광사, 1996, p.145.

4) E.캣시러, 유철 역, 「루소, 칸트, 괴테」, 서광사, 1996, pp.6~7.

고 말한 것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루소는 필경 인간이 다시 자연 상태로 돌아가는 것(귀환)을 바란 것이 아니라, 인간이 지금 서 있는 단계로부터 자연 상태를 돌이켜볼 것(회고)을 바란 것이라고 해석하였다.⁵⁾ 또한 인류의 역사는 자연권인 생존의 자유로부터 시작하는 자유의 역사라고 볼 수 있다.

인류의 역사는 생존적 자유와 도덕적 자유라는 양자의 자유에 의하여 형성된다고 볼 수 있으며, 현상계에 있어서의 생존의 욕구와 예지계에 있어서의 도덕적 의지의 상호 한정적 관계에 의하여 성립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인간은 자유 존재로서의 역사적 주체인 동시에 일체의 자유의 본질적 근거이다.

인간은 본래적으로 사회적인 동물로서 공동체에 있어서만 그의 자유를 실현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인간은 서로 교체하고 행위하고 그로부터 생기는 책임과 의무를 이행하는 연대적인 성격을 갖는 존재이다. 공동체는 자연을 토대로 하여 문화를 창조하고 더 높은 도덕적 공동체로 형성해 가는 장소인 것이다. 인간이 자연의 생존적 자유로부터 출발하여 도덕적 자유를 목적으로 지향하면서 자연의 토대와 문화의 매체를 통하여 인간적 자유를 실현해 가는 곳에서 역사의 자유가 발견된다.⁶⁾ 자연은 각 객체들로 하여금 그들의 생존을 유지하고 종족을 보존하게 하기 위하여 의식주와 성적 본능을 주었다. 그러나 인간은 이성에 의하여 본능에 의한 자기의 생존의 직접 태를 초월하여 창조적으로 생존한다. 즉 이성은 본능의 제한을 초월하여 자기를 확대할 수 있는 능력을 자각함으로써 문화를 창조하며 살아간다. 그리하여 본능적 충동을 지배하는 자유 의지의 자발적인 창조의 생활은 “단순히

5) 김용정, 「칸트 철학 자연과 자유의 통일」, 서광사, 1996, pp.291~294.

6) 위의 책. p.316.

느껴진 자극으로부터 이상적인 자극으로, 단순한 쾌적의 감정으로부터 미의 취미으로 이끌어가기 위한 하나의 기교였다.

결국 인간의 이성의 발전은 먼저 본능을 초월하여 자기의 능력을 자각하고 자유의 결의성을 발견하여 인간의 완성을 지향한다. 그리고 이성은 미래를 예견하고 숙고하고 기대함으로써 생존의 불안과 유한성을 자각한다. 그리하여 마침내 이성은 인간이 자연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고, 자기 자신이 결코 다른 사물의 수단으로는 될 수 없는 목적 자체이며, 그러한 인간성에 의해서 자유가 자각된다는 것을 알려 준다.⁷⁾ 이와 같이 자연은 보여지는 자연이면에 내재하는 의미가 크다 할 수 있으며 또한, 예술도 본질을 완벽하게 묘사할 수는 없다. 그러나 인간 자신의 정신적인 탐구에 의해 예술 작품에 있어서 본질에 가깝게 도달할 수 있으며 본질의 의미를 엿볼 수 있게 된다. 예술이 자연으로부터 모방이 시작되었다 하더라도 그 본질에 있어서는 창조적이다. 예술의 궁극적인 목적은 조화이다. 본인 작품에서 표현되어 지는 인간과 자연과의 조화는 인간이 자연을 통한 그 존재 내용에 있다.

존재한다는 것은 변화하지 않은 본질에 있다. 그러므로 본질의 탐구는 본인 작품에서 그 의미가 제시되어지고 있다.

2) 문명의 발달이 자연에 미치는 영향

생물중심자인 폴 테일러(Paul W. Taylor)는 생명을 가진 모든 존재자는 자체적으로 고유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자연에 대한 존경’ 또

7) 김용정, 앞의 책. pp.320~321.

는 '경외'를 강조하였다. 그에 의하면 인간은 다른 생명체보다 결코 우월하다고 말할 수 없는 이른바 생명 공동체의 한 구성원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그는 자연의 자체적 가치를 인지할 수 있는 유일한 주체가 인간이며, 그 때문에 특별한 위상을 갖는다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다. 따라서 '자연에 대한 존경'을 요구하는 그의 주장 속에서 필연적으로 인간 존재의 특수한 위상이 언제나 이미 전제되어 있으며, 이것은 자연스럽게 생명을 가진 존재자에 대한 가치판단의 문제로 귀결된다.

지구 생태계에서 인간은 인간만의 문화를 창조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점에서 독특한 존재이다. 문명의 전개와 발달은 인류가 얼마나 안정되고 자유로우며 풍족하게 살아갈 수 있느냐의 여부로 규정할 수 있다. 문명을 물질 문화의 좁은 뜻으로 사용한다면 인류의 문명은 인간 생활의 질적인 향상을 물질 자원을 단순히 활용하는데 그치지 않고 자원을 발굴하고 변형하고 가공하여 인간의 필요를 충족시켜 온 과정이다.

자연 자원을 바탕으로 도모해 온 인류의 문명은 자연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물질과 물체를 만들어 내면서까지 계속 확대되었다. 인간의 기술적 개입은 자연을 일시적으로 혼란스럽게 만들곤 했을 뿐이다. 자연은 스스로 균형을 회복해왔다. 그러나 인간의 과학기술이 회복할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음을 알고 있다.

생물의 다양성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서식지 훼손의 첫 번째 원인은 인구팽창이나 과도한 자원개발보다는 공간의 침식에 있다. 인간은 의식주의 풍족함을 추구하는데 그치지 않고 인간의 수명까지도 연장해왔다. 인간이 하나의 생물 개체로서 지구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은 수명의 연장과 함께 그 크기를 더해 주게 되었다. 도시생활은 인간이 만들어낸 문명의 산물이다. 여기를 중심으로 진행되는 대량생산과 대량소비의 생활 방식이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영향을 지구 생태계 구석구석에 까지 미치고 있다. 인간이 생태계에 미치고 있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환경오염이다. 환경오염은 지구 생태계의 질적인 저하와 심할 경우에는 생태계의 일부 또는 전체로의 파괴로까지 진전되고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를 야기한다.⁸⁾ 이는 우리에게 자연에 대한 새로운 책임을 부과한다. 자연의 모든 존재들은 있는 그대로의 상태로서 각자 내재적인 가치를 가진다고 주장할 수 있다. 인간은 자연 환경 속의 일부분으로 자리하는 법을 배워야한다.⁹⁾ 이와 같이 자연 환경의 문제는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본인 자신의 문제로 인식하며 본인의 작품<도시>에서 표현하고자 했으며 작품의 의도는 위의 자연환경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자연의 일부인 인간으로서 책임의식을 느끼며 문명의 발달에 의한 자연을 시각화하는 작품을 만드는데 있어 인류의현재의 모습과 미래의 인류와 자연에 대한 의식의 폭을 넓히는데 주안점을 두었다.

3) 자연을 통한 미에 대한 관점

자연미에 대한 직접적인 관심은 자연이 산출해왔던 대상의 현존과 존재에 대한 관심이다. 이와 같은 자연미에 대한 직접적인 관심은 자연에서의 아름다운 형식과 인간 능력들 사이의 연관에 대한 형이상학적 관조이므로 도덕성의 형이상학적 토대와 일치하게 된다. 따라서 어떤 사람이 자연미에 대

8) 정노팔, 신영오, 이명희. 「생물과 인간 그리고 문화」. 연세대학교 출판부, 2000, p.252.

9) 베어드 캘리콧의 지음, 윤미연 역, 「자연은 살아 있다」. 창해, 2004. pp.153~157.

해서 직접적인 관심을 갖는다는 것은 그가 도덕적으로 선한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낸다는 것이다. 이는 자연 현상들에 대한 관조를 통해서 생겨나는 마음의 상태, 즉 숭고의 경우에도 해당된다. 즉 도덕성은 미와 숭고의 경험의 근저에 놓여 있는 초 감성적인 것의 이념이다. 예를 들면 자연에서의 숭고의 감정은 도덕적인 것과 유사한 심적 상태와 결합되지 않고서는 생각될 수 없는 이른바 도덕성의 필수적 조건으로서, 그것은 도덕적 도야의 수단으로 활용된다. 그리하여 만일 내가 어떤 것을 아름답다고 하였다면, 그것은 동일한 상황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아름답게 여겨져야 하고, 더 나아가서 그와 같은 미적 인식은 보편적인 의무로서 부과될 수도 있다. 다른 한편 어떤 사람이 미적 관조의 대상이 되는 자연성을 훼손함으로써 자연미가 주는 쾌감을 현저하게 감소시키거나 파괴하였다면 그러한 행위는 도덕성을 훼손한 것이 되고 정언명법에 저촉된다.

그리하여 미는 도덕적으로 선한 것의 상징이라는 사실이 드러나게 되었다. 그리고 미가 다른 모든 사람들의 동의를 요구하면서 쾌감을 주는 것은 오직 이러한 관점, 즉 모든 사람들에게 자연스럽게 의무로서 요청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에게 미적 쾌감을 주는 판단들에 대한 보편타당성의 요구는 그것이 단지 보편적으로 통할 수 있는 것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이다.¹⁰⁾

‘예술은 자연의 미메시스이다’라는 예술론의 전통적인 명제에서도 분명하듯이, 미학의 역사에 있어서 ‘자연’은 예술이 모방해야 할 대상으로 그 출발부터가 가치적으로 지고한 것이었다. 디드로에 있어서 ‘자연’의 모방이란 ‘현상적 물체’에 대한 한치의 오차도 없는 모사(copie)는 아니다. 그것은 평범하고 일상적인(commune et domestique) 하층의(basse) ‘자연’으로서 세속적인 우리의 삶 바로 그것이다. 그렇다면 이 자연은 현실 속에서 우리 눈앞

10) 김진, 「칸트와 생태사상」, 철학과현실사, 2003, pp.31~33.

에 현존하여, 보기를 원한다면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닐까? 물론 그렇지 않다. 왜냐하면 디드로에 있어서 '자연'은 "가슴속에 모든 선한 것을 간직하고 있는 것이어서 "모든 진의 풍요로운 원천"이기에 자연은 어느 것 하나 부정확한 것을 만들지 않는다. 따라서 모방하는 것은 자연이 아니라 예술이다.¹¹⁾ 동양의 노장사상의 무위자연의 개념의 해석은 무위자연의 미는 천지 대자연에 인공을 가하지 않고 천연적인 자연계가 생성변화의 총 원리로 드러내는 미를 말한다. 그러므로 무위자연은 자연의 법칙에 순응함으로써 저절로 성립되는 것이고, 자연법칙을 벗어나 자신의 목적을 애써 추구하지 않아도 일체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듯 노장학파는 천지, 즉 대자연속에 완전한 미가 존재하고 있음을 분명하게 긍정하고 있다.

그리고 자연계의 생성변화에 대한 인식판단이 사람과 시대상황, 환경 그리고 관점에 따라 달라진다고 했으며 '무위이무불위'의 원칙은 합법칙과 합목적의 통일이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 이는 자연 법칙에 순응하는 상태로의 무위이며 본인 작품에서 추구하는 미의 이상적인 형태와 내용은 예술작품에 천연의 미를 드러내면서도 예술적 의미부여의 형식을 만족시킬 수 있다는 뜻이 내재되어 있다. 예술은 자신을 의식하는 정신에서 출발한다. 이와 같은 미의 해석은 본인의 예술세계의 기본 정신으로서 작품으로 표현되어져 왔다.

11) 한국미학예술학회 편, 「예술과 자연」, 미술문화, 1997, pp.83~85.

2. 작품의 형태적 근거

1) 자연에 대한 심상

본인에게 있어서 자연은 부모의 이미지와도 같다. 유년시절의 자연에서의 추억과 기억은 본인을 예술의 감성으로 유도 하였다. 칼 구스타프 융에 의하면 추억, 꿈, 사상은 아동기의 경험에 중점을 두고 있는데 그 시기의 경험이 유년기의 성격과 태도, 흥미를 형성하는 결정적인 요인이라고 말했다¹²⁾. 본인의 유년 시절은 자연을 가까이 하시는 아버지의 영향으로 자연에 대한 많은 경험을 가졌었다. 이러한 경험이나 추억은 늘 자연에 대한 향수로 나타났다. 그것은 본인 자신에 내재하여 있다가 조각 작품으로 표현되었다. 유년시절 자연의 풍경은 본인의 뇌리에 깊이 각인되었고 개천에서 그물로 낚아 올려지던 물고기들의 이미지는 생에 대한 희열이란 감정을 느끼고 알게 해주었다. 그리고 주변의 자연 풍경의 이미지는 본인 작품에서 배경의 여백으로 표현되어진다. 유년시절 아버지의 고기 낚는 모습과 낚여진 물고기에 게서 힘찬 자연의 생명력을 보았으며 인간 삶의 역동성과 삶에 대한 경이로움을 느꼈다. 본인이 성인으로 성장한 후에도 자신 안에 내재한 이러한 의식적 바탕에 의해 자연을 스케치해왔다. 그것은 현재의 시점에서 풍경조각이라는 결과물로 표현되었다. 나이가 들에 따라 한때 잊고 지냈던 기억속의 자연이 현존의 대상으로 다가오며 그것은 자연의 회고를 의미한다. 유년시절의 자연은 본인의 의식에서 외향성으로 해석되어진다면 지금의 자연의 의미는 자연에 내재된 내적의미로 해석된다. 나이가 들에 있어 자연을 바라보는 감성의 변화를 느낀다. 청소년기의 자연은 주관적인 있는 그대로 보여

12) 켈빈 S. 홀, 최 현 역, 「융 심리학 입문」, 1985, p17.

지는 자연이었다면 지금의 자연은 주관적이며 객관적인 대상체로서의 자연이다. 본인에게 있어서 자연은 자연의 사계의 변화와도 같은 의미이다. 본인은 자연의 생성변화를 올바로 이해하려고 노력함으로써 삶을 보다 더 진지하게 받아들이게 되었다.

2) 존재의 은유적 표현

본인의 작품은 자연의 대상을 바라보며 자연을 통해서 인간의 삶을 재 조명해보는데 그 뜻이 있다. 자연의 생물 또는 무생물은 본인의 작품의 주요 모델로서 물고기, 새, 숲, 짐승의 형상들과 하늘, 물, 숲의 자연풍경의 배경으로 조형화 되어졌다. 자연의 생태계의 한 선상에 같이 공존하는 생명체들은 본능적 삶의 유사성을 지닌다. 동물이나 조류 어류 포유류 등 많은 종의 생물들의 군집생활은 마치 인간의 사회를 연상케 하며 새끼를 낳아 먹이고 어느 시점까지 책임지는 행위 또한 인간의 가족형태와 큰 차이가 없다. 본 작품<도시>는 수중이라는 물의세상을 마치 인간 세상과 같이 표현해냈다. 수중은 인간이 생존할 수 없는 곳으로 수중의 도시의 건물을 검정색으로 표현함으로써 공포심을 유발시켰다. <도시>는 환타지적인 발상의 작품으로 거대가오리는 인간사회의 문명의 지배에 있어 무형의 존재를(환경오염) 수중의 괴물로 묘사함으로써 우리 인간 사회의 물질문명에 내재된 어두운 면을 강조하여 두려움과 공포심을 유발시켰다. 이러한 류의 작품<숲1,2>에서도 표현 되어졌다. 문명의 발달에 의한 병리적인 현상은 인간 소통의 단절 등 고독, 우울 등 현대의 각박한 삶을 자연 생명체를 통해 조명함으로써 <숲1>숲의 새들의 대화하는 장면의 실상이 무엇인지에 대해 은유적으로

표현하였다. 숲은 짐승에게 있어서 생존의 장이면서 안식의 장소이다. 숲은 자연 생명체의 원초적 안식처며 마지막 안식처이기도 하다. 인간의 자연으로의 회기에 의미를 둔 작품이다.<숲2>는 인간이 자연 생태계의 주체적 존재로서 균립한다면 자연이 내재하고 있는 진정한 의미를 이해하지 못한다. 인간이 자연의 언어를 이해 하고자 하려면 자연과 인간은 주체와 객체간의 벽을 허물어야 자연의 언어를 들을 수 있다. 작품<길>은 선택이라는 본질에 대한 의미가 내재한 작업이다. 인간의 인생은 우연히 이루어지는 것보다 순간의 선택에 의해 결정되어진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들의 행복과 불행이 마치 운명에 의해 결정되는 것으로 생각한다. 누군가 말했듯이 인간은 반신이라고 한다. 인간은 앞에 일어날 일을 어느 정도 예견하는 본능적 육감이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것을 심각하게 인식하지 못한다. 작품<길>에서는 그러한 삶의 상황을 관망하는 외가리의 형상을 본인의 내면의 상태로 은유적으로 표현함으로써 인간자신의 삶의 선택은 본인 자신의 의지에 의해 결정되어진다는 본인의 철학적 소견을 표현한 작품이다. 작품 <정지된 시간> <잃어버린 시간>의 물고기의 형상과 고동, 잎파리는 인간 또한 자연의 일부로서 내재한 존재성을 표현한 것이다. 그리고 원기둥과 직육면체, 정육면체, 삼각기둥은 투명하게 표현함으로 자연물의 배경은 공간의 표현이며 세상을 의미한다. 본인의 작품에서 물고기는 자유의 상징으로 표현된다. 물고기는 물이라는 세상에서 존재하는 생명체로서 마치 인간이 땅에서 산소를 마시며 살아가는 모습을 은유화하여 표현했다. 물은 지구의 거의 모든 곳을 연결하는 출구이며 시발점이라 할 수 있다 물은 물고기가 살아가는 이상적인 자유의 세계이다. 장소(물, 하늘)는 대상(물고기, 새)을 필요로 하듯이 자유 또한 대상에 의해 그 가치가 있다. 본인 작품에서 새의 의미는 본인 정신세계에 대한 ‘이상’을 나타내며 새가 날 수 있는 하늘은 무

한대의 우주로 향하는 관문으로서 하늘의 의미는 본인의 끝없는 이상의 무대로 표현된다. 물고기나 새 등을 의인화하여 정해진 틀(세상)에 은유하여 조형화했다. 본인작품의 원기둥과 직육면체 그리고 정육면체, 삼각기둥은 세상의 이미지로의 표현이다. 작품에 있어 공간의 여백은 물과 하늘의 이미지로 작품의 전체적인 분위기는 회화의 풍경화를 보는 듯하나 조각으로서 입체에 충실했다.

3) 표현방법

본인의 작품은 사진을 보는 것과 같이, 회화를 감상 하듯이 입체의 무게를 줄 수 있는 물질적 부피와 성질을 다소 가볍게 조형화 하였다.

인간이 살아가면서 시시때때로 변화하는 사고를 작품의 작은 공간에 사진의 한 장면처럼 표현 하고자 했다. 한 장면사진이 주는 의미는 현재의 모습이나 상황뿐 아니라 과거의 상태나 모습 미래상황을 연상 시킨다.그것은 현상태의 상황이 사실로 보여 지므로 자각하는 입장에서 분명하게 받아들인다. 그것은 자각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더 많은 것을 알고자 하는 궁금증을 불러 일으킨다. 실물의 분명함은 한 장면만으로도 과거와 현재를 연결지어 이미지를 떠올리게 한다. 그렇게 내재되어 있는 모든 내용을 본인의 작품에서 함축시켜 조형화 하는데 연구의 의미 또한 있다. 자연의 풍경을 화폭에 담아내듯 풍경을 조각화 하였다. 자연의 풍경을 바라보는 시각의 해석은 서정적이며 감상적이다 그리고 주관적이며 객관적이다. 또한 감성적이며 이성적이다. 이 모든 것을 동시에 작품으로 담아내는 것이 본인 조각의 가장 큰 목적이라 할 수 있다.

본인 작품에 표현 기법에 있어 물과 하늘, 공간(여백)의 표현에 따른 제작과정에 대해 설명 하고자한다. 작품의 여백의 표현과 투명함은 작품을 객관적인 시각으로 이해하기 위한 본인의 표현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물과 하늘은 공간이라는 여백에 의해 표현되어지는데 본인은 이러한 요소를 사방 어느 방향에서나 보여 질 수 있도록 투명하게 표현했다. 재료는 투명폴리로 선택하여 작품화하였다. 본인 작품에서의 물 표현은 작품제작 후에 굴절현상으로 유리나 거울처럼 선명하지는 않지만 물의 굴절 효과는 표현되었다고 볼 수 있다. 직육면체의 작품 틀은 흙으로 만든 후에 틀을 튼튼히 하기 위해서 두껍게 석고를 뜬다. 석고에서 흙을 제거한 다음 틀을 그늘에서 2~3일 건조 시킨후 석고의 안쪽 면을 (용액이 닿는 면)깨끗이 사포질한 후 먼지를 털어 내고 왁스를 충분히 바른다. 용액 사용 시 건조제를 먼저 섞는다. 그리고 나중에 용액을 틀에 부을 때 용액에 경화제를 잘 섞어 틀에 붙는다. 건조제와 경화제는 기후, 온도, 습도의 상태의 상황에 따라서 양을 조절해서 사용해야한다. 계절에 민감한 재료적 특성으로 기온이 낮은 겨울이 습도나 온도가 높은 여름에 비해 작업이 용이하다. 건조상의 문제로 볼 때 여름이 겨울보다 건조가 빠르다 본인은 봄과 여름에 용액작업을 한 관계로 기온이 높은 낮에는 용액 작업을 피하고 서늘한 저녁때 한차례만 용액 작업을 했다. 직육면체의 틀을 이용한 작품으로 대부분의 작품은 20~25일 정도 용액 작업을 했다 원기둥형태의 작품은 굴절 현상이 보다 심하고 깊이가 깊으면 깊을수록 안의 조형물의 구분이 어렵게 되므로 작품의 크기에 있어 넓이, 깊이에 유의해서 작품을 해야 한다. 그리고 작품의 밝기는 촉진제 양에 의해 영향을 받기도 한다. 작업 시 용액의 분량은 작품 크기에 따라 차이가 나며 한번에 용액은 조금씩 부어 나가는데 기온이 높은 경우 보통 2~3cm 두께를 넘으면 균열이 가기 쉽다. 용액 작업을 단계적으로 해

나가면서 조형물체를 적당한 시기에 맞춰 틀 안에 고정시키고 계속해서 용액 작업을 한다. 용액 작업이 끝난 작품은 2~3일 후에 틀을 깨내고 표면을 완전히 경화시킨 후 그라인더로 거친 면을 갈아내고 샌딩기로 매끄럽게 정리한다. 마지막으로 같은 용액으로 표면을 코팅하여 마무리한다.

3. 개별 작품 분석



[작품 1] 이상1, 15×15×40cm, 나뭇가지, 폴리코트, 철사, 안료, 2008

[작품 1] 이 상 1

크 기 : 15×15×40cm

재 료 : 나뭇가지, 폴리코트, 철사, 안료

제작년도 : 2008

제작방법 : 흙으로 직육면체를 성형하고 석고를 두껍게 뜬다. 흙을 빼낸 후 서늘한 곳에서 몇 일간 건조 시킨다. 건조 후 틀 안쪽에 거친 부분을 사포질하여 표면을 매끄럽게 한 다음 깨끗이 털어낸다. 틀 안쪽 면에 왁스 칠을 한 후 용액 작업 전에 작품의 내용물인 새는 스킨피로 만든다. 실리콘 작업을 한 후 F.R.P로 성형한다. 채색하고 말뚝은 오브제를 이용했다. 용액 작업 중 조형물을 넣어가면서 완성 시켜나간다.

본인 작품에서 새는 자유와 이상의 상징적 매개체로 이용 되어진다. 현대에 와서 비행기가 만들어지기 이전에는 하늘을 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새 뿐이었다. 새는 중세의 과학에 의해서도 하늘을 날 수 있는 욕망의 연구 대상이었다. 새는 인간이 하늘을 날 수 있는 열쇠였다. 지구상의 문명과 과학의 발달은 모두 자연의 생명체에서 그 실마리를 풀어 나갔다. 본인은 자연을 통해서 인간이 살아가는 진리가 내재하고 있다고 보며 그것은 예술에서 증명되어 진다. 인간의 예술적 감성은 다른 어떤 것보다도 빨리 받아 들일 수 있게 하는 힘이 있다. 새는 본인의 의지의 상징체이다. 새의 직시의 시선은 본인 이상에 대한 의지의 표현이며 새의 시선의 방향에 표현의 중심을 드러냈다. 직육면체의 조형적 특성은 길이 감을 줌으로 해서 새의 고고함과 끝은 무한대로 향하는 시선은 본인 자신의 자아의 정체성을 강조하기 위해 조형화하였다.



[작품 2] 도시, 28×28×29cm, 폴리코트, 안료, 아크릴 칼라, 2008

[작품 2] 도 시

크 기 : 28×28×29cm

재 료 : 폴리코트, 안료, 아크릴 칼라

제작년도: 2008

제작방법: 원기둥을 흙으로 만든 다음 석고를 떼서 원 기둥 틀을 만든다. 흙을 제거 한 후에 건조시켜서 틀 안쪽 면을 매끈하게 사포질 한 다음 먼지를 깨끗이 털어낸다 틀에 왁스를 바른다. 건물은 흙으로 만든 다음 석고 틀을 만들어 F.R.P로 성형 하여 사포질하여 마무리하고 채색한다. 물고기는 스텔피로 만들어 석고를 떼서 F.R.P로 성형 한 후에 아크릴 칼라로 채색 한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는 문명의 발달에 의한 인구의 증가와, 도시화는 생태계의 위협을 주고 있다. 자연에 있어 도시개발에 의한 자연 훼손 등은 녹지가 점점 줄어들고 있으며 그로인한 자연 재해 등은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무엇보다 도시의 발달에 있어 거대 건축물의 증가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고립 시키며 소통의 단절을 야기 시킨다. 그로인한 범죄의 증가는 날로 심각해지며 사람과 사람들 간의 소통의 두절은 인간 자신들을 황폐하게 만들고 그로인한 사회적 문제들을 발생 시킨다. 인간이 사는데 있어 문명의 발달은 필요 이상의 것을 제공 하므로 해서 인간 자신 스스로가 자멸하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할 수 있겠다. 본인 작품에서 나타내고자 했던 의도는 과학 문명 발달로 인한 사회의 병리적 현상 사람간의 소통의 두절, 사회적 병폐현상 등을 어두운 수중도시의 바다 괴물로 두려움과 공포를 표현해 내고자 했다. 표현에 있어 원 기둥은 작품 내용을 이어주며 구의 중심으로 작품의 이미지를 통일시킴으로써 작품의 어두운 내용을 긴장감 있게 만든다.



[작품 3] 숲1, 23×23×24cm, 나뭇가지,폴리코트,안료, 2008

[작품 3] 숲 1

크 기 : 23×23×24cm

재 료 : 나뭇가지, 폴리코트, 안료

제작년도 : 2008

제작방법 : 원기둥을 흙으로 만든 다음 석고를 떼서 틀을 만든다. 건조 시킨 후 안쪽 면을 매끄럽게 사포질해서 깨끗이 불순물을 털어내고 왁스를 바른다. 틀 안에 들어갈 조형물인 짐승형상은 스텐드로 성형 한 뒤 실리콘으로 틀을 만들고 F.R.P로 완성한 다음 채색한다. 그리고 주변의 숲은 마른 나뭇가지를 잘 손질해서 채색한다.

현대문명에 찌든 인간을 자연은 치유하는 능력이 있다 원래 인간은 자연으로부터 나서 자연으로 돌아가는 자연의 일부이므로 근원적인 치유는 자연의 귀환에 있다. 본 작품에서 자연에서 안식을 취하고 있는 짐승의 형상은 자연의 생명체로서의 숲의 정기를 받고 살아간다. 그러나 인간은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살아간다. 사회는 큰 의미로는 세계, 국가, 지역사회, 가정으로 구분되어진다. 그중 가정은 인간의 원천적 사회로 인간 힘의 원천이다. 본 작품에서 숲의 표현은 가정을 은유적으로 표현한 것이며 짐승의 형상은 인간을 의인화하여 상징적으로 조형화 했다. 표현에 있어 원 기둥은 자연을 한 공간으로 모으는 역할을 한다. 원 기둥은 끊임이 없이 작품의 내재되어 있는 의미를 보여 줄 수 있다.



[작품 4] 숯2, 23×23×24cm, 나뭇가지,폴리코트,안료, 2008

[작 품 4] 숲 2

크 기 : 23×23×24cm

재 료 : 나뭇가지, 폴리코트, 안료

제작연도 : 2008

제작방법 :원 기둥을 흙으로 만든 다음 석고를 뜨고 흙을 제거 한 다음 건조 시킨 후 틀 안쪽면의 거친 면을 사포질 하고 불순물을 잘 털어내고 틀 안쪽 면에 왁스를 바른다. 틀 안에 들어갈 조형물은 새는 스텐필로 만들어 실리콘으로 틀을 만들어 F.R.P로 성형하여 채색하고 숲의 조형물은 마른 나뭇가지를 손질하여 채색한다. 틀에 용액을 부어 가면서 숲의 조형물을 넣고 고정시키고 계속 용액 작업을 한다가 적당한 때에 새를 넣고 계속 용액 작업을 한다. 용액에는 촉진제와 경화제를 따로 따로 배합해서 작업을 해야 한다.

자연의 생태선상에 인간과 생물은 같이 공존한다. 인간이 자연생물의 언어를 이해한다는 것은 자연과 함께 공존하며 살아가는데 의미를 부여 한다면 쉽게 해석되어 질수 있다. 새들의 지저귀이 아름답고 평화롭게 느껴진다면 그것이 새의 실체일까 생각 해 볼 필요가 있다. 실체와 가상은 우리 인간이 인간의 허구에서 만들어 놓은 것과도 같은 것이다.<숲2>의 숲에서 두마리의 새가 나뭇가지에 앉아 대화를 하는 관점으로 해석해 보았고 다른 관점에서는 다투고 있는 시각으로도 해석해보았다 다각적 관점에서 해석해 볼 때 실체와 허구가 어떻게 작용하는지 알게 되었다. 인간은 모든 관점을 인간이 해석하고 싶은 데로 생각 한다는데 문제가 있음이 자각되었고 작품에서 다각적인 시각을 드러내고자 하였다.



[작품 5] 동행1,2, 동행1, 17×23×44cm, 동행2, 28×32×44cm, 폴리코트, 안료, 2008

[작 품5] 동행 1, 2

크 기 : 동행1, 17×23×44cm

: 동행2, 28×32×44cm

재 료 : 폴리코트, 안료

제작년도 : 2008

제작방법 : 삼각기둥을 흙으로 만든 다음 석고를 뜬다. 흙을 제거 한 뒤에 석고 틀을 건조 시킨다. 건조된 틀의 안쪽면의 거친 부분을 매끄럽게 사포질한 후 먼지를 깨끗이 털어낸다. 틀의 안쪽에 왁스를 바른다. 조형물인 새는 스킨피로 만든 후 F.R.P로 성형한 뒤 채색 한다. 삼각기둥 틀은 모서리를 밑으로 해서 넓은 면으로 용액을 부어 나간다. 용액 작업을 해나가면서 적당한 때에 새의 형상을 넣고 계속 용액을 부어 나간다.

우리나라에서 기러기는 원앙으로 그 의미가 더 크다 하겠다. 선조들의 자연에 대한 관찰과 그에 따른 해학의 수준 또한 깊다고 할 수 있다. 본인이 기러기를 관찰한 바에 의하면 기러기는 짝을 중시여기며 집단의 형태로 무리지어 이동한다. 움직일 때 기러기의 소리도 크고 요란하며 마치 인간의 집단의 움직임과도 같다. 예술은 자연을 모방한다는 말은 매우 논리적이라 할 수 있다. 자연에서 발견되어지는 생명의 가치는 곧 바로 인간 자신의 문제로, 주체와 객체간의 벽을 허물 때 이루어진다. 생명의 존귀함과 만물의 영장으로서 자연을 보고 즐기는 권리는 우리 인간에게만 주어지는 특권으로써 자연에 균립하기보다 자연의 일부인 존재적 입장에서 환경을 자연 상태로 관리하는 책임과 의무에 충실해야한다. <동행1>은 사람이 성장하여 남녀가 만나 짝을 이루며 살아가듯이 기러기들도 암 수가 만나 함께 동반하여 살아간다. 그 모습이 지금 현대 사회의 결혼관의 문제로 볼 때 날짐승들에

계도 불변이 있는데 인간은 도덕적으로 그렇지 못한 예가 너무 많이 발생되어 지고 있다. 그리고 오늘날 현대사회의 핵가족화는 가족관의해체로 나타나기도 한다.

[동행2] 종대 형태로 무리지어 나는 기러기 때는 마치 가족의 형태와도 같으며 한가정의 가장은 기러기들의 맨 앞에서 무리를 이끌고 가는 리더와 같다는 생각이 들으니 새삼 가장의 역할의 중요성이 느껴졌다. 이 작품에서는 부부애, 가족의사랑, 가장의 역할과 무게에 대한 생각과 자연이 주는 세상 이치의 순응의 의미의자세로 조형화 시켰다. 삼각기둥의 틀은 새가 나는 방향성에 중심을 두기위해 제작 했으며 삼각기둥의 모서리를 길게 하여 새가 나는 방향과 일치하였고 새의 움직임을 시각적으로 유도하기위해 삼각기둥을 배경으로 설정했다.



[작품 6] 정지된 시간 1, 2, 3, 32×32×30cm, 나뭇잎,소라껍데기,폴리코트,
안료, 2006~2008

[작품 6] 정지된 시간 1, 2, 3.

크 기 : 32×32×30cm

재 료 : 나뭇잎, 소라껍데기, 폴리코트, 안료

제작년도 : 2006~2008

제작방법 : 빙산의 형태를 각 각 흙으로 만든 다음 각 각 석고를 떼서 틀을 만든다, 틀에서 흙을 빼낸 다음 건조 시켜 틀 안쪽을 깨끗이 한 다음 왁스를 바른다. 틀의 좁은 부위를 아래쪽으로 향하게 고정 시키고 넓은 쪽으로 용액을 붓기 시작한다. 틀 가운데 들어갈 첫 번째 조형물인 나뭇잎은 완전히 건조 시킨 후 채색하고 두 번째 조형물인 소라는 깨끗이 손질해서 건조 시킨 다음 검정 색으로 채색 한다. 세 번째 조형물인 물고기 형상은 흙으로 만들어서 F,R,P로 성형한 뒤 채색했다. 용액 작업을 하는 도중 중간 지점에서 위의 조형물을 넣고 용액 작업을 계속한다.

이 작품은 2006에 구상한 작품들 중에서 초기의 작품으로 당시에 새롭게 조각 공부를 시작 했던 시기의 작품이다. 다시 조각 공부하기 전에 너무 오랜 시간 본인의 꿈에 대한 정체 상태의 표현이다. 빙산에 묻혀 화석이 된 채 오랜 시간을 뛰어 넘어 현재의 세상으로 나온 생명체처럼, 그러나 죽지 않은 불멸의 존재와 같이 빙산 안에서 정지된 상태로, 그렇게 영겁의 세월을 거쳐 현실세계로 뛰어든 본인의 자아적 표현 이라고 할 수 있겠다. (정지된 시간1)의 잎새의 의미는 오랜 세월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존재성에 대한 생명력의 상징적 의미라고 할 수 있겠으며 (정지된 시간2)의 소라가 의미하는 뜻은 오랜 시간 태고의 신비성을 간직 한 채 빙하에 잠들고 있는 고동의 고고함의 표현으로서 작가의 정신세계의 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정지된 시간3)의 물고기는 본인을 의인화한 표현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정지된 시점의 상태로 멈춰있는 자아의 상태를 상징적으로 표현 했다.



[작품 7] 잃어버린 시간, 25×25×25cm, 폴리카보네이트, 철사, 안료, 2008

[작 품7] 잃어버린 시간

크 기 : 25×25×25cm

재 료 : 폴리코트, 철사, 안료

제작년도 : 2008

제작방법 : 정육면체를 흙으로 만든 후 석고를 떼서 틀을 만들고 흙을 제거한 다음 틀을 건조 시킨 후 틀 안쪽의 거친 부분을 매끄럽게 사포질한 다음 먼지를 깨끗이 털어낸다. 틀에 안에 들어갈 거미줄은 철사로 엮어서 만들었으며 물고기는 스킨피로 만든 후 실리콘으로 틀을 만들어 F.R.P로 성형하였다. 첫 단계 용액 작업 후 다음 단계에 거미줄 모형을 넣어 고정시키고 계속 용액 작업을 하다 작품의 중앙에 물고기를 넣고 용액작업을 계속한다.

이 작품 또한 정지된 시간과 같은 시기에 구상된 작품들 중 하나로 거미줄에 갇혀 자신이 원하는 세계로 나아가지 못하는 물고기의 형상을 본인 심리적 상태의 은유적 표현이다. 자유의 상징인 물고기의 갇힘 즉 자신을 의지대로 살지 못하는 것은 시간과 공간 모두를 잃는 것으로 해석한 작품이다. 이 작품에서의 거미줄은 마치 덧과도 같은 의미로써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어떤 원하지 않는 상황에 처하는 상태의 표현이다. 거미줄은 실제의 약하고 가는 거미줄의 느낌이 아닌 경직된 가쳐 버린 감옥과도 같은 느낌을 줄 수 있도록 철을 꼬아서 제작했다. 정육면체의 틀은 직육면체의 틀과는 달리 길이감이나 방향성에 치중하지 않았으며 현 상황을 그대로 강조시킴으로 긴장감을 표현하고자했다.



[작품 8] 길, 24×24×16cm, 폴리코트, 안료, 아크릴 칼라, 2008

[작 품8] 길

크 기 : 24×24×16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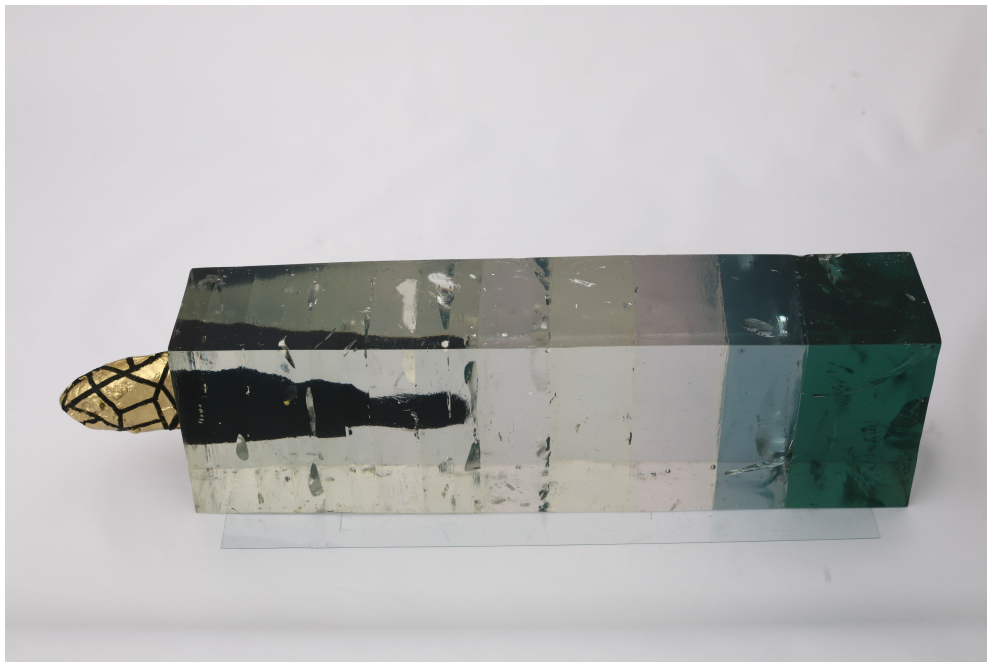
재 료 : 폴리코트, 안료, 아크릴 칼라

제작년도 : 2008

제작기법 : 정육면체를 흙으로 만든 후 석고를 떼서 틀을 만든 다음 흙을 제거한 후 틀을 건조 시킨다 건조된 틀 안쪽의거친면은 사포로 매끄럽게 갈아내고 불순물을 깨끗이 털어낸 다음 표면위에 왁스를 발라준다. 작품 길 밑의 바닥 표현은 따로 틀을 만들어 틀 밑에다 집어 넣고 용액 작업을 시작했다. 용액 작업 중에 새와 자동차등을 순서대로 넣고 작업해 나간다.

인생은 여러 갈래의 추상적인 길이 있다. 행복한길, 불행한 길, 기쁜 길, 슬픈 길, 편안한 길, 험난한 길, 외로운 길, 고독한 길, 정열의 길, 무의미한 길, 등 수 없이 많은 길이 있다. 그러나 앞만 바라보며 가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가고 있는 길 외에는 자각하지 못한다. 자신이 존재하는 현 상황만이 자신이 살아가는 유일한 길로 알고 끝까지 가는 경우도 있고 우연히 도중에 다른 길이 있음을 깨닫고 어디로 가야할지를 선택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이 세상에는 많은 길이 있는 것을 사람들은 미리 자각한다면 삶에 있어서 보다 유연한 삶을 살게 될 것이며 자신 이외의 사람들을 보다 많이 이해하게 될 것이다. 인생을 시행착오 없이 값지게 살 것 이라고 생각해본다. 그러나 인간은 신이 아니므로 한치 앞도 예견 못 하고 인생을 살아가기 마련이며 다만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볼 때 인간은 현재의 삶을 사랑하며 열심히 살아갈 때 어떠한 길이 나오더라도 후회하지는 않을 것이라 생각된다. 또한 사고의 폭을 넓힘으로서 삶의 올바른 선택을 하리라고 본다. (작품 길)에서는 똑 길 위에서 앞을 향해 달리는 빨간

자동차는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대부분의 삶을 표현한 것으로 빨간색의 의미는 열정 적으로 현재의 삶에 집착하는 인간들의 모습을 표현 했으며 얼마가지 않아 옆으로 나 있는 길은 하늘로 향하고 있다. 이것은 어느 누구도 경험해 보지 못한 길이다. 그리고 앞으로 이어지는 길은 어디에서 끊길지도 모르고 또 다른 길이 나올 수도 있고 여러 갈래의 길이 한꺼번에 모이는 교차로를 만날 수도 있다. 작품에서 이러한 장면을 관망하는 외가리의 모습은 본인 자신의 의인적 표현으로 대상을 객관화 시키려는 화자의 자세를 엿 볼 수 있다. 화자의 입장이란 객관적이며 이성적이다. 작품에서의 외가리의 위치는 관망의 입장이며 대상을 엄격하게 객관화 시켜 해석하고자 하는 작가의 입장이라고 할 수 있으며 외가리는 본인자신을 의인화하여 표현했다. 정육면체는 작품의 내용물을 사각구도로 잡기위해 만들었으며 맨 앞쪽에 외가리를 배치하고 가운데는 뚝 길을 위치했으며 좌측에는 자동차와 오른쪽에는 길을 표현함으로 현 상태의 시점을 강조 했다.현 시점에 초점을 두어 인생의 가치를 현 시점에 두고 현 시점을 출발점으로 보는 본인의 인생에 대한 가치관을 조형화했다.



[작품 9] 표출, 7×12×46cm, 폴리코트, 안료, 아크릴 칼라, 2008

[작 품9] 표출

크 기 : 7×12×46cm

재 료 : 폴리코트, 안료, 아크릴 칼라

제작년도 : 2008

제작방법 : 직육면체를 흙으로 만들어 석고를 떼서 틀을 만들고 흙을 제거한 뒤에 틀을 건조 시킨다. 건조된 틀의 안쪽의 거친 표면을 매끄럽게 사포질하고 먼지를 깨끗이 털어낸다. 그리고 왁스를 바른다. 물고기는 생물을 석고 떼서 틀을 만들어 F.R.P로 성형하여 채색하였다. 처음 용액 작업 시 용액에 안료의 양을 진하게 시작해서 점진적으로 약하게 첨가함으로써 방향성을 강조 시켰다.

< 작품9 >표출은 자신이 존재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자유를 찾는 것이 중요하다. 자신의 위치를 벗어나서의 진정한 자유는 존재하지 않으며 그것은 또 다른 속박 을 의미 한다. 진정한 자유는 걸음으로 드러나기에 앞서 자신 안에서 먼저 이루어진다.



[작 품 10] 봄 1.2.3, 15×40×16cm, 폴리카보네이트, 철사, 안료, 2008

[작 품10] 봄 1.2.3

크 기 : 15×40×16cm

재 료 : 폴리코트, 철사, 안료, 아크릴 칼라

제작년도 : 2008

제작방법 : 각 각 흙으로 직육면체를 만든 다음 석고를 떼서 틀을 만들어 흙을 제거 하고 틀을 건조 시킨다. 건조된 틀 안쪽 면의 거친 면은 사포질을 해서 매끄럽게 만들고 왁스를 바른다. 용액작업을 하면서 미리작업 해놓은 작품 안에 들어갈 조형물 들을 시기에 맞춰 넣고 계속 용액 작업을 해서 작품을 완성 한다.

<봄1,그리움> 가장 일반적인 시각적인 이미지로 봄 하면 우선 진달래꽃을 연상 하게 된다. 시인 김소월의 ‘진달래꽃’ 의 시는 우리 민족의 정서가 잘 나타나고 있다. 우리 강산 어디에나 봄이면 흔하게 볼 수 있는 꽃이며 화려하지 않은 소박함과 대중적인 이 꽃은 우리 정서에 깊이 내재하고 있다. 본 작품에서의 진달래꽃의 이미지는 우리정서가 갖는 향수와도 같은 그리움으로 표현된다. 직육면체의 틀은 길이감을 줌으로 해서 시간의 흐름을 시각적으로 느낄 수 있게 조형화 했다. <봄2,희열> 봄을 대표하는 꽃으로 개나리꽃을 들 수 있다. 개나리꽃의 노란색깔은 강렬하면서 희망적인 이미지이다. 바람에 요동치듯 흔들리는 개나리꽃의 표현은 내면에서 솟구치는 삶에 대한 기쁨과 희열의 심리상태의 표현이며 파랑새의 이미지는 여러 예술작품에서 표현되어 지고 있듯이 이상에 대한 희망의 이미지로서의 본 작품에서 또한 본인의 심리적 갈망을 은유적으로 표현했다. 봄은 만물의 소생과 시작을 의미하듯 이 작품에서 위의 심리적인 상태를 파랑새와 노란색의 조형물과 같은 방향으로 날라 가는 새의 형상으로 좀더 움직임의 강조하기 위해서 조형

화했다. 곡선을 강조한 개나리의 울동적 표현을 강하게 표현 하고자 철사로 틀어 꼬아서 그 끝 부분에 방향을 잡아 휘어 표현했고 방향성을 강하게 나타내고자했다 이 작품의 직육면체의 길이 감은 위의 <봄1>과 마찬가지로 시간의 흐름을 시각적인 효과를 방향성에 두었다. 또한 프리즘효과는 물속을 연상케 하며 방향적 감각을 강조시킬 수 있었다. <봄3,이상> 본 작품은 독도에 사는 꿩이 갈매기를 모델로 작품화했으며 꿩이 갈매기의 힘찬 날개의 움직임과 광활한 바다에서의 비상은 힘찬 삶의 이미지로서 희망적인 삶의 모습을 조형화했다. 새의 강렬한 이미지는 마치 본인자신에 대한 사고의 강한 의지와 동일시표현하였으며 바다와 하늘은 새들의 자유로운 무대로 해석하여 본인의 작품에서 바다와 하늘은 본인 이상세계를 은유적으로 표현하였다. 이 작품에서의 직육면체는 또한 새의 날라 가는 모습의 상태를 시각적인 효과를 얻고자 방향성에 초점을 두고 작업했다.

Ⅲ. 결 론

인간은 자연 속에서 많은 생명체와 함께 공존하며 살고 있다. 인간은 자연의 한 부분으로서 동시에 만물의 영장으로서 자연을 책임져야하는 책임과 의무 또한 주어진다. 현대사회는 물질문명의 발달로 인한 이기주의 팽배와 도시 개발로 인한 이웃간 소통의 단절등 문명의 부작용은 인간이 다시 자연으로 돌아갈 때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는 해독제와도 같다.

본인의 작품세계에 있어서 자연의 의미는 자연을 통한 인간의 삶을 조명하는 재창조의 가치를 두고 있다. 인간은 자연 속에서 인간 존재의 의미를 발견하려 하였다. 즉, 자신은 누구이며, 어디로부터 왔는지,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지 존재성에 대해 정의를 내리기를 원하고, 존재에 대한 의미와 가치를 확인하기를 원한다. 그것은 자신의 정신성의 재발견을 의미한다.

또한, 자연을 통한 시각으로 대상을 대하는 본인의 작품세계와도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 자연을 바라봄으로써 자신의 의식 세계를 객관화 할 수 있으며 그것은 이성적이다. 본인의 작품에 나타나고 있는 인간 내면을 자연의 생물을 대상으로 은유화한 본인의 객관적인 시각으로서의 표현이다. 자연의 풍요로움은 늘 본인에게 충만한 영광을 준다. 자연으로부터 오는 마음의 안식은 나이가 들에 따라 더욱 깊이 있게 느껴진다. 하잘 것 없어 보이는 작은 벌레 하나에도 살아 움직이는 의미를 깨닫게 되며 길가의 잡초에서도 아름다움을 발견하게 된다. 자연이 본인에게 주는 진정한 의미는 생명성에 대한 고찰이다. 또한, 창작하는 한사람으로서 예술은 인간의 외적,내적인 정신적 고양을 목적으로 진정한 창작인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항상 염두에 두고 자연을 통해서 존재의 의미와 다양한 시각의 관점을 보다 더 심화시켜 나감으로써 폭 넓은 의식세계를 표현하는데 몰입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1) 제임스 손튼, 정영문역, 「자연은 나의 영혼입니다」, 모색, 2004
- 2) 한국미학예술학회 편, 「예술과 자연, 미술문화」, 1997
- 3) 김용정, 「칸트 철학 자연과 자유의 통일」, 서광사, 1996
- 4) E.캣시러, 유철 역, 「루소, 칸트, 괴테」, 서광사, 1996
- 5) 정노팔, 신영오, 이명희, 「생물과 인간 그리고 문화」, 연세대학교 출판부, 2000
- 6) 베어드 캘리콧외 지음, 윤미연 역, 「자연은 살아 있다」, 창해, 2004
- 7) 김진, 「칸트와 생태사상」, 철학과현실사, 2003
- 8) 아놀드 하우스저, 황지우 역, 「예술사의 철학」, 돌베개, 1983
- 9) 켈빈 S. 홀, 최현 역, 「융 심리학 입문」, 1985

ABSTRACT

A Study on the Metaphorical Expression through Nature – Centering around My Work –

Kwak, Jeong Ho
Dept. of Sculpture
Graduate School of Plastic Arts
Sungshin Women's University

Numerous life bodies to exist on earth have offered many things to human beings materially and mentally. According to Aristoteles, he said, "Art imitates nature." Life of human beings has developed by the development of civilization and culture through imitation in nature. But, it can be said that original nature of nature doesn't change and it is continuous. Human beings have lived, adapting themselves to circulation course historically.

Nature has offered many things to human beings mentally and materially.

Real meaning that nature gives to human beings is in spirit to be immanent in it than phenomenon to appear. It is art spirit to seek in my work.

Difference of viewpoint which understands nature is expanded and interpreted to the difference of viewpoint.

Difference of viewpoint is subjective and individualistic. Interpretation becomes different and meaning changes also, according as where we lay visual angle of viewpoint for subject. As for inner observation for diverse organisms and lifeless things to exist in nature in my work, meaning of study was laid by expanding meaning of work and understanding of thinking.

In the introduction of chapter 1, I described manufacture motive of work and study goal that I tried to express through nature in my work.

In the main discourse of chapter 2, explained about viewpoint for human beings through nature that I try to express in my work, influence that human beings have on nature which is seen in the line of ecosystem, and sensitive benefit for beauty that nature gives to human beings. In addition, I expressed human existence for subject seen through nature symbolically by personifying it. And, I explained about motive of material choice, manufacture course of work, material feature and technique also.

In the conclusion of chapter 3, I described contents of this thesis by arranging intensively, thought about my work world

from diverse angle with wide visual field, and tried to realize
and present from of existence through nature to many directions
through work.